



HOME > 수행&신행 > 수행&법문

[삼보사찰 천리순례 5일차] 힘들어도 자비의 꽃은 핀다

공 박봉영 기자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1.10.05 12:48 | ☎ 호수 3686 | 💬 댓글 0



시암재~성삼재~남원까지 26km
불교신문 노동조합 집행부 동참

불교신문이 '삼보사찰 천리순례' 전 구간을 함께 걸으며 동행 취재에 나섭니다. 송광사를 시작으로 해인사를 거쳐 통도사에 이르기까지 423km를 걷는 고단한 여정이지만 '자기 수행과 대중 화합'이라는 화두 아래 어제와는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는 매일이 될 것입니다. 걷기 조를 포함해 진행 및 지원단까지 150여 명에 이르는 순례단은 매일 땀을 흘리며 걷고 물집으로 인한 통증과 싸웁니다. 제대로 씻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새벽 이슬, 한낮의 더위, 맨바닥 추위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힘으로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천리순례단입니다. 18일 간의 일정 동안 본지가 현장 소식을 매일 전합니다.



불교신문TV

더보기 >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 길에서 12-1...

포토뉴스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 개막



색선별 최신기사

불교신문TV

"SNS에
뉴스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

많이 본 기사

- 1 [삼보사찰 천리
- 2 [삼보사찰 천리
- 3 [삼보사찰 천리
- 4 [삼보사찰 천리
- 5 [삼보사찰 천리
- 6 [삼보사찰 천리
- 7 [삼보사찰 천리
- 8 [삼보사찰 천리
- 9 조계사 불교대
- 10 [삼보사찰 천리

2022년
예비 남
오



문의 / 안내 : 0

대한불교

최신뉴스

- 해인사 '문화재관람
- "불교계 매도 정처리
- [삼보사찰 천리순례
- 영축총림 통도사, 13
- (사)경남파라미티청
- 영축문화재단, 제9회
- 선각자 '백성욱 박사
- 내 마음과 세상을 밝
- 목련존자 지극한 효
- 한옥목수의 촌집수



삼보사찰 천리순례 5일차 걷고 있는 순례단 모습.

천리순례 5일차. 지리산 서북 능선의 세찬 바람을 텐트 하나에 의지해 밤을 지낸 순례단이 사암재를 떠나 성삼재에 올랐다. 하루 전 천은사에서 사암재로 이어지는 고도 958m 가파른 굽잇길을 오로지 두 발에 의지해 묵묵히 걸어 오른 탓인지 해발고도 1079m 성삼재에 오르는 순례단 발걸음이 무겁다. 고된 순례 길에도 이들을 위로하는 건 지리산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이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능선을 덩달아 걷다 언뜻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면 수천개 별들이 쏟아질 듯 은하수가 확 확히 펼쳐진다. 도심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장관이다.

순례 중간에 접어들면서 함께 하는 이들과 서로 걸음을 맞추는 것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 지난 4일 간 행렬 제일 뒤에 서서 순례단을 뒷받침 했던 우바새 그룹은 이날 선두 그룹에 섰다. 순례 초반이 고비였던 만큼 순례단에 힘을 불어 넣어 달라는 지원단 요청 때문이다.

우바새 그룹 8조 조장 정충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는 “평지에서선 속도를 내고 내리막길에선 속도를 줄이며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걷고 있다”며 “순례단 전체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선두 그룹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막중한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월선원 자비순례에도 참가했던 정충래 이사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날마다 걷는 길과 자는 곳이 바뀌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조금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고 했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는 하루에도 수십번 순례단은 물론 지원단을 긴장하게 한다. 지리산 성삼재를 넘어 전북 남원으로 접어드는 구간. 3시간을 걸어야 하는 순례단이 용변을 볼 곳이 마땅치 않은 코스다. 지원단은 하루 전 사전 답사 때 미리 구덩이를 파 둔 곳을 찾아 순례단이 도착하기 직전 휴식 지점에 천막을 세우고 랜턴을 달았다.

누가 뭐래도 절실히 필요하지만 티가 나진 않는 일. 이상종 숙영팀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려 해도 순례단 입장에서 불편함이 많을 것 같다”며 “물집이 생기고 인대가 늘어나면서까지 매일을 걷고 15도 이상 일교차를 이겨내며 짐 더미와 함께 텐트에서 몸을 구부려 잠을 청하는 스님과 불자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 수고는 아무렇지 않다”고 했다.

종단 “불교계 매도 정청래 의원 공개 사과” 촉구
전국 해인사 “문화재관람료 의미 왜곡 정청래...
사회&국제 조계종 중앙신도회, 정청래 의원...
인물 [본·말사 주지 인사] 2021년 9월 30일 중...
대중공사 [포교현장에서] 청년회의 또 다른 줄...
수행&신행 [삼보사찰 천리순례 15일차]간장...
문화 은은한 차향에 담긴 '조계사 예불소리'의 ...
기획&연재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 길...
출판&문학 선각자 '백성옥 박사' 삶과 가르침...
학술&문화재 “이웃에게 큰마음 내는 게 수록...
복지&상담 “수제 비누와 삼푸, 이웃과 나눠요”



첫 종단본 《불교성전》
- 종정 법어, 총주원
초기경전, 대승경전, 산어
불교 문맥에 깊이를 더한
부처님 말씀에 쉽게 접근!

법공양 (기획PR)



사찰 연
BUDDHIST
불교계 대표인물
법어 대인물
한국불교 대표인물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화이팅!을 외치며 다시 잔 걸음에 나서고 있다. 28도에 이르는 한낮의 더위에도 서로 힘을 북돋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순례단.



순례단이 휴식을 취하기 전 미리 휴식 장소에 가 임시 천막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 이상종 숙영팀장과 라원준 자원 봉사자.



김해 성조암은 18일 간의 걷기 일정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하는 순례단을 위해 매일 아침 따뜻한 수건과 옷차를 준비하고 있다.



호산스님이 일일 참가자인 불교신문 노동조합을 순례 대중에 소개하고 있다.



강풍으로 인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에서 출발전 새벽 예불은 필수다.



커브 길에 접어들고 있는 순례단 뒷모습.



일일 참가자는 '묵언'증은 패용한다.



한낮의 더위에도 가사장삼을 수한 채 걷는 스님과 재가자들.



이날은 우바새 그룹이 선두에 섰다. 맨 앞이 8조 조장 정충래 동국대 이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뒷모습.



가을이 한창임에도 한낮의 더위를 자랑하는 남원.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숙영지에 들어서며 발열 체크에 응하고 있다.



불교신문 노동조합 집행부가 삼보사찰 천리순례 일일 참가자로 동참했다.

남원으로 접어들면서 순례단은 덕동리에서 아침 공양을 했다. 따뜻하고 깨끗한 수건과 옷차가 공양에 앞서 순례단을 맞았다. 순례 참가자인 허허스님이 주지로 있는 김해 성조암이 마련한 것으로 18일 간의 걷기 일정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하는 순례단을 위해 새벽부터 준비한 것이다. 성조암 상우스님과 신도들은 매일 새벽 1시 김해를 출발해 순례단 조식 장소로 온다. 출발 일정이 당겨지거나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성조암 식구들도 매일이 긴장이다.

성조암 신도 감차희 씨는 순례가 시작된 후 제대로 잠을 자 본 적 없다. 매일 오전 12시 자택인 부산을 출발해 1시 김해 성조암으로 가 물을 끓이고 수건을 박스에 담는 등 순례단 지원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수건과 물을 나눠주던 감차희 씨는 “시간이 허락지 않아 순례단에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을 이렇게 푼다”며 “순례단이 걷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불교가 참 좋은 것, 지금까지와는 다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 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순례 초반을 지나 차도와 산길, 평지와 가파른 오르막과 내리막을 걸으며 고비 고비를 넘기고 있는 순례단이지만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자대비의 정신으로 기꺼이 수고로움을 감수해주는 이들이 있어 순례단 일정도 고되지 않은 셈이다.

한편 이날 순례에는 불교신문 노동조합 집행부가 참가해 이목을 끌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불교신문지부 신임 위원장 어현경, 부위원장 홍다영, 사무국장 이성진, 재정국장 김은주 등 집행부를 비롯해 장영섭 기자, 주정덕 차장 등 6명이 참가했다. 천리순례 총도감 호산스님은 “오늘 특별히 불교신문에서 일일 참가를 해줬다”며 재차 고마움을 표했다.

순례단은 시암재~성삼재~남원까지 26km를 걷고 이날 일정을 회향했다. 6일차인 10월6일에는 실상사를 참배하고 함양으로 향한다.

“

“천리순례하며 형동생 됐어요”



5일차에 형동생이 된 안현민 대불련회장과 김호준 선수.

김호준 전 국가대표 스노보드 선수 안현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고령의 참가자가 다수인 순례단 가운데 2030세대 젊은 참가자들이 눈에 띈다. 매서운 눈매의 김호준 전 국가대표 스노보드 선수(30)와 언제나 싱글벙글 밝은 웃음을 짓고 있는 안현민(24)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이번 순례에 참가하며 처음 인연을 맺었다. 전혀 다른 이미지의 두 사람은 순례단 맨 뒤에서 힘을 불어넣는 우바새 그룹이다. 곳곳이 걸으며 함께 아픔과 기쁨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친한 형동생’이 됐다고.

안현민 회장은 “군대 행군만큼 힘들다”면서도 “호준이 형이 있어 외롭지 만은 않다”고 했다. 안 회장은 “불보 범보 승보라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천리를 순례한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참가하게 됐다”며 “체력적으로 힘들긴 해도 쉬는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을 취하다보면 아픈 것도 사라진다고 해맑게 웃었다. 순례 코스에 포함된 사찰을 참배하며 언젠가 이곳에서 템플스테이를 해보겠다 마음 먹었다는 안 회장은 “천리순례를 회향하는 불보종찰 통도사까지 건강한 제 두 발로 한국불교를 생생히 느끼며 걸겠다”고 했다.

들르는 사찰마다 불전을 하기 위해 두둑이 봉투를 챙겨왔다는 김호준 선수는 “아직까진 ‘발이 아프다’ ‘쉬고 싶다’ ‘언제 도착하나’는 생각으로 가득하다”며 “신체적으로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해져 가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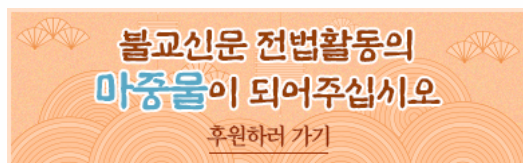
운동선수일 때도 걷는 것을 제일 싫어했다는 김 선수는 “싫어하는 일을 완성했을 때 무언가 깨달음을 얻곤 했던 것 같다”며 “같은 맥락에서 처음엔 자기 성찰의 목적으로 참여했지만 사찰마다 예불하고 불전하며 그리고 존경하는 호산스님(김호준 선수는 호산스님이 창립한 상월선원 청년회 제1기 출신이다)의 뒷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불심이 생기는 것 같다”고 했다.

남원=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사진=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저작권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봉영 기자 | 이경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4일차] 지리산 가거든...자승...
- L [영상] 삼보사찰 천리순례 입재식...한국불교 중흥 ...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 ① 함께 걷는 길, 자리...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1일차] ① 한국불교 새 운동.....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 ① 청매선사 깨달음 얻...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7일차] 조금만 더 가자...응원...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 ② 순례단 찾은 총무원...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① 비바람 불어도 꽃갈...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10일차] 245km 걸어 박수와 ...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 ② "부부 아니고 50년...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3일차] 안개 자욱한 섬진강 따...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 ② 사찰 참배하며...무...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1일차] ② 삼보의 의미를 다시 ...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특집] 한국불교 중흥 위한 첫 ...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 ② 자승스님 실상사 참...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 ① 견디고 참고 기다리...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9일차] 가야산에 이르러 해안...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② "딸과 평생 한번뿐...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 ① 누적 295km...순례...

댓글 0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 최산순 추천순

신문사소개 광고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우)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견지동),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 편집국 : 02-733-1604 | 구독문의 : 02-730-4488 | 광고문의 : 02-730-4490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2197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6446 | 창간일 : 1960-01-01 | 등록일 : 1980-12-11

제호 : 불교신문 | 발행인 : 원행스님 | 편집인 : 현법스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여태동

Copyright © by 불교신문. 기사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